

KERI Insight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skim67@keri.org

상업세계의 불확실성을 떠맡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회를 포착해서 부를 창출하는 기업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세기조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세후 수익률의 제고와 함께 창업환경의 지속적 개선으로 보다 많은 사업 기회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것으로 우려되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혁신을 통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업가정신이 제고되어야 한다. 2000년 이후 경제활

동인구 100만 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나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으로 살펴본 OECD 국가들의 기업가정신의 추이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최근 들어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한 시기에 증세기조로 선회하거나 감세기조를 유예하는 것은 성장잠재력 확충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최소자본금제도의 폐지 등으로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

1.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

□ 기업가는 누구인가?¹⁾

- 기업가는 상업세계의 불확실성을 떠맡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회를 포착해서 부를 창출하는 사람을 지칭
 -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기업가는 모험적·창의적·경쟁적이며 위험한 선택에 따른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
 - *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지적처럼, 상업 세계를 비롯한 인간세계에는 자연과학의 세계와는 달리 규칙적인 함수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 나이트(Frank Knight)는 기업가들이 감당하는 불확실성을 경험적 성공 또는 실패 확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불확실성으로 설명
- 기업가는 경영인 또는 자본가와 구분됨.
 - 기업가는 모험적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인이 할 일을 정해 줌.
 - * 예를 들어 생산라인의 신설, 확장, 또는 폐쇄에 대한 결정은 기업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경영인은 이러한 기업가의 결정을 수행
 - 기업가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해 주는 자본가와도 구분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가, 경영인, 자본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음.

□ 기업가들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²⁾

- 기업가들이 특정사업을 시작하면서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음.
 - 첫째, 수익성이 없는 특정사업을 낙관적으로 보고 시작했다가 사후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
 - 둘째, 수익성이 있는 특정사업을 비관적으로 보고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이윤기회를 실

현하지 못하는 경우

- 앞의 두 번째 오류는 장부상 손실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기 쉽지만 첫 번째 오류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윤을 얻을 기회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손실과 다를 바 없으며 기업가들이 두 번째 오류에 빠지면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불하려고 했을 성공 가능한 사업들이 실현되지 못함.
 - * 결과적으로 투자는 부진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은 그 사업의 생산물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누릴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경제성장은 그만큼 낮아지게 됨.
- 기업가정신의 제고는 기업가들이 범할 수 있는 두 번째 오류를 줄여주며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확보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

□ 기업가정신의 이론적 배경: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

- 슈페터(J. A.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 잘 알려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며 중요한 성장동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슈페터(1934)에 따르면 창조적 파괴과정은 기존의 기업과 제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업과 신제품의 반복적 시장출현으로 해당기업에 독점적 이윤을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국가경제는 혁신을 중심으로 진화·발전함.
 - * 기업가들이 기업가정신을 상실하고 창조적 파괴과정을 중단하면 성장잠재력은 훼손되고 경제발전은 둔화되므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 여건 조성이 필요
 - Kirzner(1997)는 기업가적 탐험 과정(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이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탐험 과정은 수많은

1) 이 부분은 기업가의 본질에 관한 김영용 원장의 미완성 원고를 참조하였다.

2) Kirzner(1990)를 김이석(2009)에서 재인용하였다.

시행착오 속에서 기업가들에게 이윤기회(profit opportunity)를 준다는 점을 강조

- Aghion and Howitt(1998)의 내생적 성장이론은 스펀터의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들은 스펀터의 창조적 파괴의 개념을 기업가들이 경쟁기업의 아이디어를 낚은 것으로 만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경쟁과정(competitive process)으로 설명하고 있음.

□ 최근의 실증분석 문헌: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Salgado-Banda(2005)는 1980~1995년의 22개 OECD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
 - 생산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비중으로 측정된 경우보다 특허출원수를 이용하여 측정된 경우의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Audretsch and Thruik(2001)는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중으로 측정된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업률을 줄인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1974~1998년까지의 23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
- Dawson(2006)은 한 경제의 기업가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적 자유도(economic freedom)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경로를 직접적 경로와 간접적 경로로 구분하여 분석
 - 경제적 자유도의 향상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향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 경제적 자유도의 향상은 투자 확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간접효과를 가짐.

- Gwartney(2004)도 규제환경 등 제도의 개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유사한 실증결과를 제시

- Reynolds, Hay, and Camp(1999)와 Zacharakis, Bygrave and Shepard(2000)은 국가 간 경제성장률 차이의 1/3~1/2이 기업가정신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³⁾

- Reynolds *et al.*(1999)는 국가 간 경제성장률 차이의 1/3이 기업가정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 Zacharakis *et al.*(2000)는 국가 간 경제성장률 차이의 절반이 기업가정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필요

- 국제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의 둔화를 우려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이전의 수준보다 크게 둔화된 4~5%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이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우려 확산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 투자 확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
 -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OECD 국가들의 2000년 이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정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
 -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감세정책에 대한 회의적 견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향후 우리 경제가 취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Kreft and Sobel(2005)에서 재인용

2. 2000년 이후 기업가정신의 변화 추이

□ 기업가정신의 대응변수

- 관측되지 않는 변수인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존연구들은 국제특허 출원건수, 비농업부문의 자영업자 비중, 비농업부문 단독 소유주(sole proprietorship) 비중,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중 등을 사용
 - Salgado-Banda(2005)는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중과 국제특허 출원건수를 기업가정신의 대응변수로 사용
 - Kreft and Sobel(2005)은 비농업부문 단독 소유주와 국제특허 출원건수를 사용
 - Audretsch and Thruik(2001)는 2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출하비중과 비농업부문 자영업주 비율을 사용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과 같이 국제특허 출원건수와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율을 기업가정신의 대응변수로 사용하고자 함.
 -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인구 100만 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와 경제활동인구에서 고용주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1)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살펴본 기업가정신

□ 2000년 이후 개선되던 한국의 기업가정신, 2007년 다소 악화

-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창조적 파괴과정을 지속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한 국가의 기업가정신을 대변
 - 기존의 기업과 제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업과 제품의 출현으로 발현되는 기업가정신은 특허의 상용화 정도 또는 창업 수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만 국제비교를 위한 해당 통계 자료는 가용하지 않음.
 - 이외에 기업가정신의 대응변수로 연구개발투자

를 고려할 수 있으나 특허 출원은 연구개발투자의 결과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투자보다는 한 단계 정제된 지표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100만 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2000년 31.1건에서 빠르게 증가하며 2003년 OECD 평균(60.6건)을 상회하였으나 2006년 109건을 정점으로 2007년 102.8건으로 감소([표 1]과 [그림 1] 참조)

[표 1] 2000년 이후 OECD 국가별 국제특허 출원건수 (Triadic Families 기준)

(단위: 건/경제활동인구 10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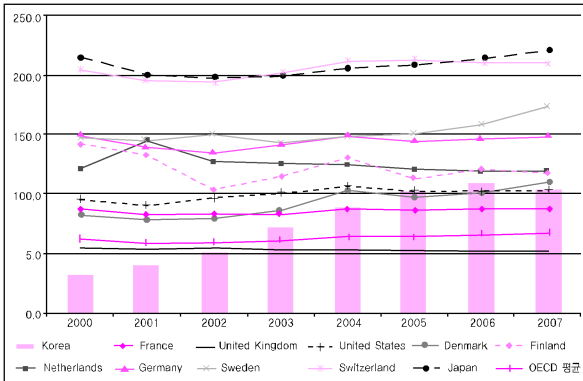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Mexico	0.2	0.3	0.2	0.4	0.3	0.4	0.4	0.5
Turkey	0.2	0.4	0.3	0.3	0.5	0.7	0.7	1.0
Poland	0.5	0.6	0.8	0.6	0.9	0.8	0.8	1.0
Slovak Republic	0.8	0.7	0.9	1.7	1.1	1.3	1.5	1.5
Portugal	0.7	1.1	1.1	1.3	1.2	1.9	1.9	2.2
Greece	1.5	1.2	1.7	2.5	1.7	2.7	2.8	2.6
Czech Republic	1.7	2.8	3.2	3.0	2.9	3.0	3.3	3.6
Hungary	8.3	7.4	6.7	9.5	10.2	8.9	9.5	9.7
Spain	8.1	8.6	8.5	8.4	10.6	10.3	10.4	10.9
Iceland	60.6	22.3	47.0	22.2	9.0	29.1	27.7	21.9
New Zealand	26.1	20.6	29.0	29.1	28.7	23.2	23.2	22.2
Italy	28.8	30.3	30.1	29.2	31.1	30.8	31.0	30.0
Australia	36.7	32.5	34.1	32.5	34.4	32.0	31.4	31.4
Ireland	23.1	28.1	27.5	34.4	35.4	32.1	34.2	34.7
Canada	32.7	32.2	34.4	33.0	36.8	38.6	39.3	38.2
Norway	44.2	37.0	43.1	39.5	42.4	50.1	50.2	50.8
United Kingdom	55.9	53.4	54.2	53.9	53.5	53.1	52.8	52.4
France	86.7	83.1	83.0	82.4	87.2	87.1	87.2	88.1
Belgium	81.7	77.8	78.5	71.7	92.6	87.4	88.5	88.4
Austria	69.2	65.4	79.4	81.8	93.5	87.6	96.7	95.3
Luxembourg	101.9	123.2	64.5	97.5	115.6	107.9	116.2	100.7
United States	96.7	90.9	96.1	100.3	105.4	102.0	102.2	101.9
Korea	31.1	39.7	51.7	72.3	88.7	102.6	109.0	102.8
Denmark	83.1	79.3	80.4	86.0	103.0	97.2	100.4	110.4
Finland	142.8	133.0	103.8	114.3	130.0	113.3	120.1	118.2
Netherlands	120.9	144.5	127.4	125.5	125.9	120.9	119.5	120.0
Germany	149.9	139.6	136.0	142.0	147.6	145.7	146.1	148.3
Sweden	148.7	145.0	149.6	143.6	148.2	151.2	158.8	173.4
Switzerland	205.7	197.1	195.5	200.3	210.9	212.6	211.2	210.6
Japan	215.9	200.4	197.9	198.7	205.7	208.2	213.8	221.9
OECD 평균	62.2	59.9	58.9	60.6	65.2	64.8	66.4	66.5

주: Triadic families 기준 특허출원건수는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 등 세 곳의 자료를 이용하여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임.

자료: OECD Stat

[그림 1] 주요국의 국제특허 출원건수 추이
(Triadic Families 기준)

(단위: 건/경제활동인구 100만 명)



- 비록 2003년 이후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100만 명당 200건 이상의 국제특허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는 일본(2007년 220건)이나 스위스(2007년 210건)와 같은 선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이들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
- 150건 내외의 국제특허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과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20건 내외의 핀란드와 덴마크보다도 낮은 수준

(2)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으로 살펴본 기업가정신

□ 한국의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

-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은 2002년 26.5%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25%로 나타났음.
- 이러한 2007년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은 2001년 대비 0.8%p 감소했고 2007년 이전 고점 대비 1.5%p 축소된 수준
-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으로 인해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전체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크게 높은 수준
- *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대응변수로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비중을

고려하고 있으나 국가별 특수성으로 인해 비중의 수준 자체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비중의 추이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 15개국 평균보다 더 크게 감소

- 2000년 대비 한국의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 감소폭은 15개국 평균 감소폭의 두 배에 달하고 2007년 이전 고점대비 감소폭은 15개국 평균 감소폭의 네 배에 달하는 수준
- 15개국 평균 비중은 2000년 대비 0.4%p와 2007년 이전 고점 대비 0.4%p 감소
- 2000년 대비 평균 비중 감소폭이 한국보다 큰 국가로는 뉴질랜드(-2.9%p), 스위스(-1.6%p), 일본(-1.4%p), 아일랜드(-1.1%p), 호주(-1.0%p) 순으로 나타났음.

[표 2] 2000년 이후 주요 국가별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비중 추이

(단위: %, %p)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비중 증감	
									2000년 대비	고점 대비
Australia	12.3	12.3	12.4	12.2	12.0	11.9	11.5	11.3	-1.0	-1.1
Austria	10.2	10.4	10.4	10.0	10.9	11.1	11.3	11.5	1.3	0.2
Canada	3.7	3.5	3.4	3.5	3.2	3.1	3.1	3.1	-0.6	-0.6
Switzerland	14.9	14.0	13.8	14.4	13.5	13.3	13.1	13.3	-1.6	-1.6
Denmark	7.3	7.7	7.7	7.6	7.3	7.4	7.8	7.9	0.5	0.1
Ireland	16.7	16.2	16.3	15.8	16.3	15.8	15.0	15.6	-1.1	-1.1
Italy	20.6	20.6	20.5	20.4	21.0	20.8	20.7	20.2	-0.3	-0.8
Japan	10.8	10.3	10.0	9.8	9.8	9.8	9.5	9.4	-1.4	-1.4
Netherlands	10.8	11.3	11.6	11.8	12.2	12.4	12.6	12.8	2.0	0.1
New Zealand	18.3	17.6	17.3	17.5	17.6	16.9	15.8	15.4	-2.9	-2.9
Portugal	5.8	6.0	5.9	6.0	6.1	5.5	5.1	5.2	-0.6	-0.9
Spain	14.7	15.2	14.6	14.1	14.2	14.5	14.6	15.0	0.2	-0.3
United Kingdom	10.9	11.0	11.1	11.7	12.0	11.7	11.8	12.0	1.1	0.0
United States	6.7	6.6	6.5	6.8	6.9	6.8	6.8	6.7	0.0	-0.2
Korea, Rep.	25.8	26.3	26.5	25.9	25.7	25.8	25.4	25.0	-0.8	-1.5
15국 평균	12.6	12.6	12.5	12.5	12.6	12.5	12.3	12.3	-0.4	-0.4

주: 1) 자영업자와 고용주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고용주 통계자료만 가용하거나 일부 2~3개 연도에만 자료가 가용한 경우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음.
3) 비중 증감은 2007년 비중의 2000년 대비 비중 증감과 2007년 이전 고점 대비 비중 증감을 나타냄.

자료: ILO Database

- 그러나 뉴질랜드(-2.9%p)와 스위스(-1.6%p)만 2007년 이전 고점 대비 평균 비중 감소폭이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음.
- 2000년 이후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한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으로 나타났음.

□ 최근 한국의 기업가정신, 다소 위축되는 양상으로 요약

-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살펴본 경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이 전개되었으나 2007년 하락하며 기업가정신이 최근 위축되었음을 시사
 - 비록 경제활동인구 100만 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규모 자체는 선두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7년 하락 반전
-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으로 살펴본 경우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 국제특허 출원건수와는 달리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 자체는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지만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기업가정신이 2002년 이후 악화됐을 가능성을 시사
 - * 한국의 자영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측정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대변하는 불완전한 지표인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의 추이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됐음을 시사

3.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정책 환경

(1) 기존 연구

□ Garrett and Wall(2006)

-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나 파산면책(bankruptcy exemption) 제도와 같은 정책변수

들에 의해 기업가정신이 크게 영향받는다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

- 1990년대 미국의 주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율, 파산면책제도, 최저임금제 등의 정책변수들이 기업가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Kreft and Sobel(2005)

- 경제적 자유를 제고하는 정책변수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1996~2000년까지의 미국 50개 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낮은 세율, 규제 완화, 개인재산보호에 의해 기업가정신이 제고될 수 있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

(2) 추정모형

-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가용여부에 따라 15~20개 OECD 국가들의 2000~2007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정책과 창업환경이 기업가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대상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 * 기업가정신을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으로 정의하는 경우 [표 2]에 나타나 있는 15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삼음.
 - 분석방법: 연도별 특성과 국가 특성을 고려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도구변수(IV) 추정법으로 추정
 - * 도구변수: 추정식에 포함된 변수들의 시차변수와 국가 평균 또는 연도 평균으로부터의 편차

- 종속변수인 기업가정신은 앞에서 살펴본 경제활동인구 100만 명당 국제특허 출원건수(Triadic families 기준)와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비중을 사용
 - o 주요 설명변수는 조세정책변수와 창업환경을 고려
 - * 조세정책변수로는 국민부담률,⁴⁾ GDP 대비 법인세수로 측정된 법인세 부담, GDP 대비 개인소득세수로 측정된 소득세 부담을 고려
 - * 창업환경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Fraser Institute에서 발표하는 Economic Freedom Index의 구성항목인 창업(starting Business) 항목 순위의 백분위수를 사용
 - * 이외에 국가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1인당 GDP를 고려
 - o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기업가정신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정책변수의 추정계수는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
 - * 조세부담의 확대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세후수익률을 낮추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할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기업가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o EFI의 창업 항목 순위의 백분위수는 낮을수록 양호한 창업환경을 나타내므로 창업환경 변수의 추정계수 또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사전적으로 예상됨.

(3) 추정결과

□ 증세기조는 기업가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 먼저 국민부담률(GDP 대비 총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의 합계) 1%p 인상은 평균적으로 국제특허 출원건수를 0.03% 축소하고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을 0.15% 낮추며 기업가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o 국민부담률 확대가 두 가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법인세 부담(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1%p 확대는 평균적으로 국제특허 출원건수를 0.16% 축소하고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을 0.28% 축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o 법인세 부담의 경우에도 두 가지 변수로 측정된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세 부담(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 1%p 확대는 평균적으로 국제특허 출원건수를 0.07% 축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o 소득세 부담 확대가 국제특허 출원건수로 측정된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정책변수들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추정결과

구분	국제특허 출원건수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			
	(1)		(2)		(3)		(4)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추정계수	p-value
국민부담률	-0.0368	0.0022	-	-	-0.1484	0.0012	-	-
법인세부담	-	-	-0.1575	0.0008	-	-	-0.2776	0.0053
소득세부담	-	-	-0.0719	0.0240	-	-	-0.4348	0.2069
창업환경	-0.0039	0.0616	-0.0034	0.0190	0.0000	0.9900	0.0012	0.7650
1인당GDP	8.1362	0.0003	3.4846	0.0000	-1.0180	0.1704	-0.3731	0.8616
$adj R^2$	0.9948		0.9965		0.9955		0.9948	
nob.	102		102		92		92	
국가 수	20		20		15		15	

주: 1) 국제특허 출원건수와 1인당 GDP는 로그 변환하였으며 그 밖의 변수들은 백분율임.
 2) 국민부담률, 법인세 부담(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 소득세 부담(소득세수의 GDP대비 비중)은 OECD에서 발표하는 Revenue Statistics의 자료를 이용함.

4) 여기서 국민부담률을 설명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뿐만 아니라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기여금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 창업환경 개선은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것으로 추정

- EFI 구성항목인 창업부문 순위의 백분위수로 측정된 창업환경의 개선은 보다 낮은 백분위수를 의미하며 음의 추정계수와 함께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것으로 추정
 -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더 좋은 창업환경을 갖게 되어 순위가 1위를 향하면서 창업부문 백분위수가 10%p 낮아지면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 비록 추정계수의 크기가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함.
 - 그러나 고용주 및 자영업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4. 시사점

□ 2000년 이후 조세환경 변화

-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한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임.
 - 2000년 이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GDP의 4%p가 확대됐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국민부담률이 증가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으며 대부분 국가의 국민부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5] 참조).
 -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세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위험한 발상임.
 - * 2007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5% 수준으로 35.8%의 OECD 평균 국민부담률보다 낮지만,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성숙해짐에 따라 향후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법인세 부담(GDP 대비 법인세수)은 OECD 평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수준이며 2008

년 법인세 부담은 2000년 대비 경상 GDP의 1%p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표 6] 참조).

- 호주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법인세 부담이 2000년 대비 1%p 이상 증가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 한국의 소득세 부담(GDP 대비 소득세수)은 9% 수준인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지만 2008년 소득세 부담은 2000년 대비 경상 GDP의 0.7%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표 7] 참조).
 - OECD 평균 소득세 부담은 2000년 이후 0.2%p 소폭 감소하며 9%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한국의 기업경영 여건

[표 4] Doing Business 한국 순위

구 분	조세부문	창업부문	전체 순위
2009	45	133	23
2010	49	53	19

자료: World Bank, 2010 Doing Business

- 최근 발표된 세계은행의 2010년 기업경영 여건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에 비해 한국의 여건은 4단계 개선된 19위로 평가됐음.
 - 조세부문과 창업부문의 평가결과는 여전히 전체 순위를 크게 하회하고 있음.
 - * 창업부문은 전체 순위를 크게 밀도는 53위에 그쳤으나 최소자본금제도 폐지 등으로 인해 80 단계나 상승하며 크게 개선
 - * 그러나 조세부문은 2009년 45위에서 2010년 49위로 4단계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음.
 - * 이는 한국의 조세부문이 실질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83개 비교대상 국가들이 우리의 조세부문 개선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개선했음을 시사
 - *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업가정신 제고하는 감세기조 유지 필요

-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성장동인이라는 점은 슉페터 이후 여러 기존 연구들에 의해서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음.
 - 따라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둔화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필요
- 기업이 스스로 도전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개발에 노력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의 근원적 함양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정책적 환경도 중요
 - 기존의 연구와 본 자료의 실증분석결과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중요 정책변수는 조세변수와 창업환경 개선으로 판단됨.
 - * 특히,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한국 경제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 수준을 OECD 평균 이하로 유지할 필요
 - * 또한 감세정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감세기조를 증세기조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 감세정책은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고, 이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밑바탕이 되기 때문임.

[표 5]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중 증감	
								2000년 대비	
Australia	31.1	30.5	31.1	30.8	30.6	30.8	-	-0.3	
Austria	43.2	44.0	43.4	42.3	41.8	42.3	42.9	-0.4	
Belgium	44.9	45.0	44.8	44.7	44.4	43.9	44.3	-0.6	
Canada	35.6	33.7	33.6	33.4	33.5	33.3	32.2	-3.5	
Czech Republic	35.3	36.3	37.8	37.6	37.1	37.4	36.6	1.3	
Denmark	49.4	47.8	49.0	50.8	49.6	48.7	48.3	-1.1	
Finland	47.2	44.6	43.5	44.0	43.5	43.0	42.8	-4.4	
France	44.4	43.4	43.5	43.9	44.0	43.5	43.1	-1.3	
Germany	37.2	35.4	34.8	34.8	35.6	36.2	36.4	-0.8	
Greece	34.0	33.6	31.1	31.4	31.2	32.0	31.3	-2.7	
Hungary	38.0	37.9	37.6	37.3	37.1	39.5	40.1	2.1	
Iceland	37.2	35.3	38.0	40.6	41.5	40.9	36.0	-1.2	
Ireland	31.3	28.0	29.9	30.4	31.7	30.8	28.3	-3.0	
Italy	42.3	41.4	41.0	40.8	42.3	43.5	43.2	0.9	
Japan	27.0	26.2	26.3	27.4	28.0	28.3	..	1.3	
Korea	22.6	23.2	23.2	23.9	25.0	26.5	26.6	4.0	
Luxembourg	39.1	39.3	37.2	37.6	35.8	36.5	38.3	-0.8	
Mexico	16.9	16.5	17.1	18.1	18.3	18.0	20.4	3.6	
Netherlands	39.7	37.5	37.3	38.5	38.9	37.5	-	-2.1	
New Zealand	33.6	34.4	35.3	37.4	36.6	35.7	34.5	0.9	
Norway	42.6	43.1	43.3	43.5	44.0	43.6	42.1	-0.6	
Poland	32.8	33.1	31.7	33.0	34.0	34.9	-	2.1	
Portugal	34.1	34.5	33.9	34.7	35.5	36.4	36.5	2.4	
Slovak Republic	34.1	33.2	31.6	31.4	29.4	29.4	29.3	-4.8	
Spain	34.2	34.2	34.6	35.7	36.7	37.2	33.0	-1.2	
Sweden	51.8	47.9	48.7	49.5	49.0	48.3	47.1	-4.7	
Switzerland	30.0	29.9	28.8	29.2	29.3	28.9	29.4	-0.6	
Turkey	24.2	24.6	24.1	24.3	24.5	23.7	23.5	-0.6	
United Kingdom	36.4	34.6	34.9	35.8	36.6	36.1	35.7	-0.7	
United States	29.9	26.5	26.1	27.5	28.2	28.3	26.9	-3.0	
OECD - Total	36.0	35.2	35.1	35.7	35.8	35.8	-	-0.2	

주: 1)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합계의 비중임. 총조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계임.

2) 이 표에 수록되어 있는 국민부담률은 SNA 기준연도 개편작업이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반영된 수치로 2000년 기준의 결과와 다소 상이함.

3) 비중 증감은 2000년 대비 2007년 또는 2008년 국민부담률의 증감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9.

[표 6]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 추이

(단위: %)

구 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중 증감
								2000년 대비
Australia	6.3	5.1	5.7	6.0	6.7	7.1	-	2.6
Austria	2.0	2.2	2.3	2.2	2.2	2.4	2.5	0.5
Belgium	3.2	3.0	3.2	3.5	3.7	3.6	3.3	0.1
Canada	4.4	3.2	3.6	3.5	3.8	3.7	3.4	-0.9
Czech Republic	3.5	4.3	4.7	4.5	4.8	5.0	4.5	1.0
Denmark	3.3	2.9	3.1	3.9	4.3	3.6	3.4	0.2
Finland	5.9	4.2	3.5	3.3	3.4	3.9	3.5	-2.4
France	3.1	2.9	2.8	2.4	3.0	3.0	2.9	-0.1
Germany	1.8	1.0	1.6	1.7	2.1	2.2	1.9	0.1
Greece	4.1	3.4	3.0	3.2	2.7	2.6	-	-0.8
Hungary	2.2	2.3	2.2	2.1	2.3	2.8	2.6	0.5
Iceland	1.2	0.9	1.0	2.0	2.4	2.5	2.0	0.8
Ireland	3.7	3.7	3.6	3.4	3.8	3.4	2.7	-1.0
Italy	2.9	3.1	2.8	2.8	3.4	3.8	3.7	0.8
Japan	3.7	3.2	3.7	4.3	4.7	4.8	4.0	0.3
Korea	3.2	3.0	3.3	3.8	3.6	4.0	4.2	1.0
Luxembourg	7.0	8.0	5.7	5.8	5.0	5.4	5.5	-1.5
Netherlands	4.0	3.3	3.1	3.8	3.3	3.3	-	-0.7
New Zealand	4.2	4.3	5.5	6.3	5.8	5.1	3.8	-0.3
Norway	8.9	8.1	9.9	11.8	13.0	11.3	12.1	3.1
Poland	2.4	2.0	2.2	2.5	2.4	2.7	-	0.9
Portugal	3.9	3.4	3.0	2.8	3.0	3.7	3.8	-0.1
Slovak Republic	2.6	2.5	2.6	2.7	2.9	3.0	3.0	0.4
Spain	3.1	3.2	3.4	3.8	4.1	4.6	2.7	-0.3
Sweden	3.9	2.3	3.1	3.7	3.7	3.8	3.3	-0.7
Switzerland	2.7	2.6	2.5	2.6	3.0	3.1	3.1	0.4
Turkey	1.8	1.8	1.7	1.7	1.5	1.6	1.8	0.0
United Kingdom	3.5	2.8	2.8	3.3	3.9	3.4	3.5	0.0
United States	2.6	1.8	2.5	3.2	3.4	3.1	2.4	-0.2
OECD - Total	3.6	3.3	3.4	3.7	3.9	3.9	-	0.5

주: 1) 법인세 부담은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임.

2) 이 표에 수록되어 있는 국민부담률은 SNA 기준연도 개편작업이 한 국 등 일부 국가에 반영된 수치로 2000년 기준의 결과와 다소 상 이함.

3) 비중 증감은 2000년 대비 2007년 또는 2008년 법인세 부담의 증감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9.

[표 7] 200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소득세 부담 추이

(단위: %)

구 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비중 증감
								2000년 대비
Australia	11.8	12.1	12.5	12.2	11.5	11.3	-	-0.9
Austria	9.6	10.0	9.8	9.3	9.3	9.5	9.9	0.4
Belgium	14.0	14.2	13.7	13.6	13.0	12.8	13.4	-0.7
Canada	13.1	11.9	11.8	11.9	12.1	12.4	12.0	-1.1
Czech Republic	4.6	4.7	4.8	4.6	4.2	4.3	4.0	-0.5
Denmark	25.6	25.6	24.9	24.9	24.8	25.1	25.5	-0.1
Finland	14.5	13.9	13.3	13.5	13.2	13.0	13.2	-1.2
France	8.0	7.5	7.4	7.9	7.7	7.4	7.5	-0.5
Germany	9.4	8.9	7.9	8.1	8.7	9.1	9.8	0.3
Greece	5.0	4.6	4.4	4.6	4.6	4.7	-	0.2
Hungary	7.1	7.7	6.7	6.7	6.8	7.2	7.7	0.7
Iceland	12.9	13.6	13.9	14.2	14.0	13.8	13.1	0.1
Ireland	9.5	7.4	8.3	8.3	8.7	8.7	7.9	-1.6
Italy	10.5	10.5	10.4	10.4	10.7	11.1	11.6	1.1
Japan	5.7	4.8	4.7	5.0	5.2	5.5	5.7	0.0
Korea	3.3	3.0	3.2	3.2	3.8	4.4	4.0	0.7
Luxembourg	7.2	6.4	6.6	7.1	7.5	7.4	8.3	1.1
Netherlands	6.0	6.9	6.1	6.9	7.3	7.7	-	1.5
New Zealand	14.5	14.8	14.5	15.4	14.9	15.0	14.4	0.0
Norway	10.3	10.7	10.3	9.7	9.1	9.6	9.1	-1.1
Poland	4.4	4.3	3.7	3.9	4.6	5.3	-	0.8
Portugal	5.7	5.5	5.3	5.4	5.5	5.7	5.8	0.2
Slovak Republic	3.4	3.3	2.7	2.6	2.5	2.5	2.7	-0.6
Spain	6.4	6.5	6.1	6.4	6.8	7.4	7.0	0.7
Sweden	17.2	14.8	15.5	15.6	15.6	14.9	13.8	-3.4
Switzerland	10.5	10.3	10.0	10.4	10.4	10.2	10.7	0.2
Turkey	5.4	4.3	3.6	3.6	3.8	4.0	3.9	-1.4
United Kingdom	10.7	10.4	10.0	10.4	10.6	10.9	10.7	0.0
United States	12.5	10.0	8.9	9.7	10.2	10.8	10.2	-2.3
OECD - Total	9.6	9.3	9.0	9.2	9.2	9.4	-	-0.2

주: 1) 소득세 부담은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임.

2) 이 표에 수록되어 있는 국민부담률은 SNA 기준연도 개편작업이 한 국 등 일부 국가에 반영된 수치로 2000년 기준의 결과와 다소 상 이함.

3) 비중 증감은 2000년 대비 2007년 또는 2008년 소득세 부담의 증감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9.

| 참고문헌 |

- 김이석, 『오바마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방향』, 시대정신, 2009년 봄호.
- Aghion, P. and P. Howitt, "En-dogenous Growth Theory," Cambridge MA: MIT Press, 1998.
- Audretsch, D.B. and R. Thurik, "Linking Entrepreneurship to Growth," *OECD STI Working papers* 2001/2, 2001.
- Dawson, J.W., "Regulation, investment, and growth across countries," *Cato Journal*, 2006.
- Domestic Policy Council, 'U.S.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Leading the World in Innovation*, 2006.
- Garrett, T.A. and Howard J.W., "Creating a Policy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 *Cato Journal*, Vol.26, No.3, 2006.
- Gwartney, J. and R. Lawson,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2," Vancouver: Fraser Institute, 2002.
- Kirzner, I.M.,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35, No.1, 1997.
- _____, "Knowledg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Some Relevant Distinctions," *Cultural Dynamics*, Vol.3, 1990.
- Kreft, S.F. and R.S. Sobel, "Public Policy,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Freedom," *Cato Journal*, Vol.25, No.3, 2005.
- J.A.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34.
- Salgado-Banda, H.,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Analysis," *Direccion de Estudios Economicos Direccioj Gdneral de Investigacion Economica Banco de Mexico*, February 2005
- Geoellis, Yannis and Howard J. Wall, "Entrepreneurship and the Policy Environment,"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Vol.88, No.2, 2006.
-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 *Where American Stands: Entrepreneurship*, 2007.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09년 12월 21일 | 발행인 김영웅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 전화 3771-0001 | 팩스 785-0270~3

